

*마스크 착용 안내: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권고에 따라 예배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깁니다.

<공지사항>

- 말씀 감사:** 오늘 주일1.2부예배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디모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 내외분은 지난 20년간 C국 선교에 헌신해오신 선교사님으로 2019년 8월부터 본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안관계상 오늘 설교말씀은 교회 홈페이지에 음성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 제작회 공고:** 정기 제작회가 8월 7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개최됩니다. 각 위원회별 보고서류는 8월 4일(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작회 참석이 어려운 제작은 본당 로비 책상에 비치된 위임장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권 예배 분리:** 오늘부터 Youth(주일학교 포함)예배와 EM Worship Service가 분리되어 드러집니다. Youth: 오전 10:30분, EM: 11:30분. 장소: 중예배실
- 임직자 훈련:**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주일 오후 1시부터 소예배실에서 임직자 훈련이 실시됩니다. 임직자들은 훈련교재를 일독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식사 헌신:** 자원하실 분들은 친교실 게시판에 부착된 작성표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주자 사임:** 2부예배 및 성가대 반주자로 섬기셨던 안미영 집사님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7월의 기도제목>

- 창립 45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가 다시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올 한해 30가정이 더해지도록
- EM 사역이 재건되어 교회가 다음 세대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올해 안에 20가정이 더해지도록
- 피택된 안수집사 4명과 시무권사 7명이 기도로 임직을 준비하며 임직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조국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조국교회가 성경적인 부흥을 회복할 수 있도록
-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회복되도록
- 북한의 독재가 무너지고 그 땅에 복음의 자유가 회복되도록
-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복음의 진보가 있도록
- 환우들의 건강회복을 위해(박재규, Rachel Varcoe, 경옥례, 황교회, 이순자, 박준일)

고현권 목사
Daniel Park 강도사
서은진(Esther) 전도사

구본석
권영제
심동철
이원중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인도: 권영제 장로
찬양 Praise		찬양팀 Praise Team
▲영광송 Doxology	13장(새 64장)	다같이 Altogether
▲묵도 Invocation	빌1:20-21 Philippians 1:20-21	인도자 Officiant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다같이 Altogether
▲찬송 Hymn	258(새 520장)	다같이 Altogether
기도 Prayer		권영제 장로 Elder James Kwon
봉헌 Offering	372장(새 595장)	다같이 Altogether
봉헌기도 Prayer of Offering		이 디모데 목사 Rev. Lee
찬양 Choir	본향을 향하네 김두완 곡	호산나 찬양대 Hosanna Choir
성경봉독 Scripture	딤후2:1-2 2 Timothy 2:1-2	인도자 Officiant
설교 Sermon	선교 20년을 돌아보며 Looking Back 20 years for Mission	이 디모데 목사 Rev. Lee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Officiant
▲찬송 Hymn	259장(새 502장)	다같이 Altogether
▲축도 Benediction		이 디모데 목사 Rev. Lee

Youth	"Ashamed and Guilty"	Daniel Park 강도사
EM	John 18:15-27	
새벽 기도회	레위기 18-20장	고현권 목사
수요 예배	복음의 열매 골로새서 1:1-8	고현권 목사

낚시 단상

고현권 목사

한달 여전 주일예배후 친교때에 집사님들이 바다낚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저도 한 번 가고 싶은데 시간이 잘 나지 않네요.'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당회에서 저에게 별도의 특별휴가를 주셔서 두주간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휴가 광고를 접한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랑 바다낚시 가실래요?" 휴가라고 해서 딱히 갈 데도 없고 그저 집에서 밀린 잠을 푹 자면서 책이나 보고 시간을 보낼 형편인지라, 집사님의 바다낚시 제안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낚시하러 가는 곳이 거의 2시간 30분 떨어진 바닷가이기에 새벽 4시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주변의 경치가 얼마나 좋은 지 그 자체가 저에게 힐링을 선물하였습니다.

도착후에 집사님이 능숙한 솜씨로 네 대의 낚시대를 펼치고 미끼를 끼운 후에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낚시를 던져 넣었습니다. 작은 바늘을 사용하는 낚시대는 조그만한 물고기를 잡는 용도라서 그런지 금방 입질이 되면서 제법 잘 잡혔습니다. 반면 큰 바늘을 사용하는 큰 낚시대는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중에 큰 낚시대에 입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낚시대가 밑으로 쑥 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당겼더니 16.5 인치 짜리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이 잡겠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던져놓고 낚시대 끝에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입질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당겼는데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금해지고 낚시대 끝을 바라보는 눈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옆을 보니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여유로웠습니다. 입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낚시대를 당겼다가 잡히지 않으면 무심하게 미끼를 갈아 끼우고 던진 뒤에 의자에 기대어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고기를 잡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것 이상으로 낚시하러 오는 것 자체가 주는 기쁨을 즐기는 집사님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곳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와서 하루를 낚시하면서 자연을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낚시대회 한번 준비해 보시지요?"

성경공부 안내

새가족반 (주일)TBA
 목요 여성 성경공부 (목)TBA
 일대일 제자 양육자반 개인별 지정 시간

예배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어린이 예배 오전 10: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주일 예배 기도	금주	내주
	권영제 장로	심동철 장로
현화	교회	조영신/정찬문

구역 선교 기도

구역	기도 협력 선교사	구역	기도 협력 선교사
1구역(강정자 권사)	김진영(터키)	6구역(구윤자 권사)	김재역(굿스폰선교회)
2구역(고경화 집사)	박금미(그리스)	7구역(신명숙 권사)	정택정(밀알선교단)
3구역(손창호 장로)	최상진(DC 구제사역)	8구역(정찬문 목사)	이홍길(유학생선교)
4구역(안선영 집사)	임철순(가나)	9구역(최영옥 권사)	이해진(세네갈)
5구역(심무임 권사)	이미경(탄자니아)	10구역(이영숙 권사)	김정구(인도)

7월

행사 및 모임

3일
17일

위원장 월례회
구역모임, 정기 당회

헌금 통계

십일조, 감사, 주일, 선교 헌금	지정 헌화	합계